

분류	주일강단 2부
제목	보화를 가진 자들
성경	고후4:1-15
일시	2024년 7월 7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고린도후서 4:1-15)

고후4: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후4: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후4: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고후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4: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4: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썸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후4: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4: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후4: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고후4: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후4: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 독취 자료 ♣

서론)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도대체 구원 받은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그거 모르면 응답 못 받는다.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발판이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언젠가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전체 흐름을 확인해봐야겠다.

1)출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애굽으로 나와서 절기를 세 개 지킨 것이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다. 나온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두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한다.

오늘 받아야 할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광야를 간 것이다. 이 능력으로 광야에서 이긴 자가 된 것이다. 영적 눈을 못 뜨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2)우리 사실 불신자에게 포로 되어 있잖아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 힘이 없이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로되었을 때 스가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은50냥에 팔릴 것을 예언되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예언되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계속 주시는 것이다.

3)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때 돌아와서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난다.

바벨론, 메데 바사. 바사가 어느 나라인가? 페르시아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가? 계속 포로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신 것이다. 맥추절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요엘 선지자를 세워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요엘 2:28절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놓치는 것이다. 율법 다툼하지 말라고 하는데 빠진다. 신비주의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빠진다. 사회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빠지는 것이다. 한국교회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율법주의가 가장 첫 번째 빠져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신사도운동이다. 예수님이 언제 신사도로 오신다고 했는가?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깐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 3단계에 장악되어 있고, 다른 종교에 장악되어 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4)우리 후대들이 또 속국이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하니 그때 “우리가 로마를 부수고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 그 생각할 것 없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계를 갈 수 없지만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정치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5)이 응답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맥추절이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후대에게 똑바른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한다.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 항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램네펀트에게 다른 것 말하면 안 된다. 복음만 말하면 된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나그네를 많은 사람들은 브리스가 부부로 본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 문제가 많이 일어난 교회다. 이 교회에 맥추절의 메시지가 임한 것이다. 그것이 고전2:12절이다. 너희가 세상의 영

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한다고 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킨다. 고전3:16,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먹는 것 가지고 싸우냐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들면 먹지마라. 그 전에 너희 신분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주일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고전10:13,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마라. 다 통과된다고 했다. 나중에 답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다.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다 길을 주신다. 흔들리기 때문에 성령충만 받으라는 것이다.

본론)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 개 애기다. 종교인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

1. 고후4:4-5, 세상 신, 사탄→ 근본 승리

세상이 다 잡혀있다. 그래서 세산 신이라고 한다. 세상 신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 승리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근본 승리다. 근본 승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지는 것이다. 요16:11,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 풍속을 가지고 다 속인다. 이기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해라.

1)세상 신이 너희를 혼미하게 하여 (4절)

이것 못 이기기도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다.

2)어떻게 이깁니까? (5절)

이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것이다.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은 계속 사용하면 없어진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3)영적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인데 눈에 안 보인다. 보이는 것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속지 말고 믿기를 바란다.

2. 고후4:6,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본 치유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말씀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한다. 어디가든지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근본을 붙잡은 것이다. 우리 안에 이전 체질들이 있다. 이스라엘이 430년에 체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옛 체질을 바꾸시는 것이다.

1)창1:3, 우리가 진짜 알고 기도할 때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우리 안에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2)사60장,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3)요1:12,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4)마5:14,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안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사명은 반짝이는 것이다. 비추는 것이다. 등대

사명은 반짝이는 것이다. 향해하여 돌아오는 배에게 등대가 비추는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5)벧전2:9,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흑암의 반대말이다. 근본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3. 고후4:7-10, 세상을 살리는 비밀→ 질그릇에 보배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 같은 사람이다.

1)세상 살리는 비밀을 알려줬다.

▶"너희들이 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느니라."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소변을 보면 요강이 된다. 금으로 만들어도 똑같다.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다. 우리가 연약해도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2)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1)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해도, 착각하면 안 된다.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염려많은 사람은 착각한다. 신분에 대해 헛갈린다.

(2)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답답한 일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답을 주시는 것이다.

(3)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4)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라.

3)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맥추절이란, 성령, 오순절이란 답을 굉장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꺾인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사 살리게 하신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다. 맥추절의 응답. 자꾸 놓치니까 서론에서 말한 것이다.

결론) 남아 있는 축복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모르고 있구나, 알아도 누리지를 않는다.

전해야 복음이 복음되는데 자꾸 놓치니까 신자가 고생한다.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찾아내야 한다.

▶여러분 남은 생애 영적 전쟁에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